

광주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박차

자동차부품협회 등과 업무협약

시험인증센터 구축 국비 요구

시장 경쟁력·일자리 창출 기대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시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육성은 물론 자동차산업의 일체적 생태계 구축과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3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홀에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광주테크노파크와 3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고장수리 시에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순정부품 50~80% 수준의 가격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지원 ▲대체부품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정부 건의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국내 홍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윤장현(사진 가운데) 광주시장이 3일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광주테크노파크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 인가한 대체부품 전문 인증기관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이 고가의 순정품(OEM)에만 의존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광주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진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하드웨어와 예산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본까지 완벽하게 구축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체부품 종합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는 디자인보호법 규제의 조기 완화 건의를 통해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부품기업의 매출 증대 등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윤장현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철강, 조선, 화학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진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하드웨어와 예산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본까지 완벽하게 구축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은

“시험기관 지정과 인증센터, 전시기능을 갖추면 완벽한 자동차부품테마파크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R&D 지원 등을 통한 2~3차 협력업체들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지난해 11월 뿌리기업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협회와 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부품기업의 미국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체부품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6개 청년사업장 “함께 일할 분 찾습니다”

오늘 채용파티...23명 모집

광주시와 광주청년센터가 함께 추진 중인 ‘2016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채용파티가 만 15~39세까지 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4월 오후 5시부터 금남 지하상가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 the 숲’에서 열린다.

이종환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채용파티는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블스, 폴리마코 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등 16개 청년사업장에서 총 23명의 청년을 모집하며, 기존 박람회 형식의 틀을 깨고 사업장별로 텐트를 설치해 캠퍼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 청년들이 어우러져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한다.

특히, 16개 사업장 중에서 2개 사업장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시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장으로,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사업장과 채용인원을 확대해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환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청년일자리 발굴사업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직무 경험과 훈련을 하고 업무능력을 숙련해 정규 일자리로 연계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의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이와 함께하는 건강 식생활 광주시가 3일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제1차 시민숲 건강한 식생활 아카데미’를 열었다. 시민 100여명이 이날 친환경 농산물 오색 주먹밥 만들기, 아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 특강 등에 참여했다.

광주시가 3일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제1차 시민숲 건강한 식생활 아카데미’를 열었다. 시민 100여명이 이날 친환경 농산물 오색 주먹밥 만들기, 아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 특강 등에 참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청연한방병원 11일 ‘인문학 북 콘서트’

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이상영)이 따뜻한 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연다.

청연한방병원은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3홀에서 ‘제1회 청년 인문학 데이트 (작가와 함께 토크! TALK)’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청연한방병원·청연요양병원이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북콘서트는 청년 임직원을 비롯해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정이다.

또한 이번 북콘서트는 인문학 강의를 통한 참여자들의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역량 신장과 혁신가치 실현을 비롯해 청년도서출판에 앞서 기본 글쓰기 소양 교육, 내적 지식 함양을 통한 청년인-파워 상승, 시민참여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기획됐다.

‘작가와 함께 토크! TALK’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북콘서트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를 집필한 김택근 작가와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의 글쓰기’ 등을 펴낸 강원국 작가의 강의에 이어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연한방병원은 이번 행사에 앞서는 참석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재능기부센터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상영 대표원장은 “이번 북콘서트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말하는 글쓰기 방법을 비롯해 글쓰기의 중요한 점, 역대 대통령에게 배우는 인성철학, 작가들이 말하는 청년의 핵심가치와 사명(인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열린다”며 “이 행사는 유명 작가들과 소통하고 기부도하는 좋은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치공원 ‘나드리길’ 걸으며 동물 만나고 생태도 배워요

동물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1시간 가량 산책할 수 있는 생태길이 선보여진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3일 우치공원 입구부터 동물원을 한바퀴 돌아보는 ‘동물원나드리길’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관람객들이 친환경 생태동물원으로 조성된 우치동물원을 산책하며 둘러볼 수 있도록 관람 환경

을 개선하고, ‘동물원나드리길’ 코스를 조성해 4일부터 관람객을 맞는다.

동물원나드리길은 우치공원 입구 매표소에서부터 동물원을 한바퀴 돌아보는 총 3.3km코스로 3개 길로 구성되며, 성인 기준 걸음으로 50분 가량 소요된다.

먼저, 우치공원 입구에서 여름철 녹음이 드러우는 메타세콰이언길을 이용하면 동물원 정문까지 11분(740m) 가량 소요되고, 대야제 옆으로 걷는 호수 벚꽃길을

이용하면 13분(870m) 가량 걸린다. 동물원 안에서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등 동물을 차례로 관람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동물원한바퀴길’은 30분(1.7km) 정도 산책할 수 있는 거리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우치공원 입구에 동물원나드리길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각의 주요 지점마다 이정표를 설치해 동물원, 놀이공원(매미리랜드), 오리 보트장, 동물 관람 지점 등의 거리와 방향을 안내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어린이들의 꿈과 추억의 장소였던 우치동물원을 단순 관람을 넘어서 휴식과 생태학습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우치공원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고, 우치공원 잔디광장에서 야간 빛채제를 열어 불거리를 더했다.

무료 개방과 시민들이 생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이 2배 이상 늘어 호남 지역민이 즐겨 찾는 가족단위 대표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아플로 눈병, 손씻기가 예방 첫걸음”

광주시는 최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아플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는 13주부터 1000명당 2.5명에서 14주에 2.7명, 15주에 2.8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행성각결막염 환자도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급성출혈성결막염(잠복기 8시간~2일)은 엔테로바이러스와 콕사키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눈병으로 갑작스러운 이물

감, 눈 충혈 등 증상을 보이고, 유행성각결막염(잠복기 5~7일)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곱, 이물감, 눈꺼풀 부종 등 증상을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행성 눈병인 급성출혈성결막염과 유행성각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 시설과 수영장 등에서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선한요양병원, 어버이날 맞이 행사

선한요양병원(대표원장 고재홍)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선한요양병원 7층 프로그래밍실에서 보호자와 직원들이 함께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달어드리는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의 병원 생활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기획된 것이다.

선한요양병원은 매일 의료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몸 운동, 감각 운동을 통한 치료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

다. 종이공예 등을 통한 눈·손 협응, 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을 돕는 한편 오케스트라 공연, 노래공연, 바이올린 악기연주 등을 통한 감성놀이 활동, 이 미용 봉사, 햇볕짜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재능봉사로 이뤄지고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선한요양병원 고재홍 원장은 “요양병원 어르신들에게 앞선 진료와 함께 이런 다양한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효과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모델 지리산 온천지구내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급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 (일시불 조정가)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리모델링 후 연 4억원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오천경매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융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교육비 1200만원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